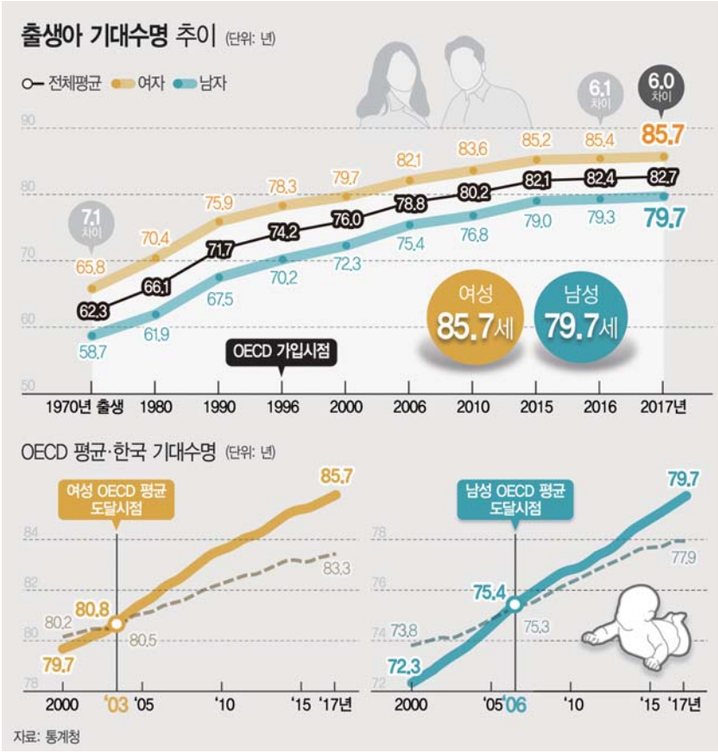
지난해 한국 출생아 82.7세까지 산다

통계청, 기대수명 등 '2017년 생명표' 발표

작년 출생아 기대수명, 男79.7년<女85.7년

OECD평균比 1.7년 · 2.4년 높아…격차↑



지난해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82.7세까지 생존할 것으로 기대됐다. 남자와 여자아이의 기대수명이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보다 높았으며 특히 여자의 경우 비교가 가능한 36개 국가 중 3위를 차지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17년 생명표'에 따르면 남녀를 통틀어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2.7년이었다. 전년 대비해선 0.3년, 10년 전 대비해선 3.5년이 늘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79.7년, 여자가 85.7년이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각각 3.8년, 3.3년 증가한 수준이다. 성별 기대수명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0년 이래 지속해서 증가해 왔다. 여자는 1980년(70.4년)에 70년을, 2001년(80.1년)에 80년을 넘겼다. 남자는 1996년 70.2년)에 70년을 넘긴 후 80년의 문턱까지 올랐다.

한국인은 OECD 회원국 국민들보다 평균적으로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의 기대수명 평균은 남자가 77.9년, 여자가 83.3년이었다. 한국보다는 각각 1.7년, 2.4년 낮았다. 한국 남자와 한국 여자의 기대수명은 각각 2006년과 2003년 OECD 평균을 넘어선 후 그 격차가 지속해서 벌어졌다.

한국 남자는 OECD 국가 중 15번째로 오래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자의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위스(81.7년)였다. 한국 여자는 3번째로 기대수명이 높았다. 일본(87.1년), 스페인(86.3년)의 뒤를 이었다. 다만 OECD 회원국별 기대수명은 나라 별로 자료의 시점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다양하다.

출생아 기대수명의 남녀 간 격차는 6년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단 0.1년, 10년 전보단 0.6년 감소한 것이며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작은 수준이다. 기대수명 격차는 1970년 7.1년에서 1985년 8.6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다만 OECD 평균(5.4년)보다는 높다.

김 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사망 원인별로 보면 간 질환 부문에서 특히 남자의 기대여명이 개선되는 추세"라며 "남녀 모두의 기대여명이 증가하고 있지만, 남자의 기대여명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개선돼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65세 생존자의 '기대여명 (Average remaining life expectancy)'은 남자가 18.6년, 여자가 22.7년으로 각각 OECD 평균(남자 18.0년, 여자 21.3년)보다 0.7년, 1.4년 높았다. 기대여명이란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를 의미한다. 출생아의 기대여명은 곧 기대수명을 말한다.

20년 전인 1997년엔 OECD 평균보다 65세 남녀의 기대여명이 모두 낮았지만, 이후 고령층의 기대여명이 OECD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높아진 탓이다. 20년간 OECD 국가 평균적으로 남자가 2.9년, 여자가 2.6년 오르는 동안 한국에선 남자가 4.8년, 여자가 4.9년 증가했다.

9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에서 기대여명이 1년 전보다 늘었다. 지난해 40세였던 남자는 40.7년을, 여자는 46.5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됐다. 60세의 경우 남자가 22.8년, 여자가 27.4년을 더 생존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대수명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84.1년)의 기대수명이 가장 높았다. 경기(83.1년), 세종(83.0년), 대전(82.9년)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부산과 충북, 경남의 기대수명이 모두 81.9세로 지역 중 가장 낮았다. 2014년과 비교했을 때 기대수명의 증가폭이 큰 지역은 세종(1.8년), 울산(1.4년) 등이었다.

김 과장은 "기대수명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사회·경제적 기반과 더불어 보건 수준에서의 차이 등이 반영된다"며 "의료시설의 수준이나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대도시가 농·어촌 지역보다 기대수명이 높은 편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생명표란 현재의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면 특정 연령의 사람이 향후 몇 세까지 살 수 있는지 추정한 통계표다. 성·연령별 전국 및 시·도 사망자 수와 주민등록 연앙인구, OECD 기대 여명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서비스' 출시

카카오톡으로 회비관리

카카오뱅크는 3일 카카오톡에서 모임 회비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모임통장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 서비스는 모임주가 기존 보유한 계좌를 모임통장으로 전환하거나 새 계좌를 개설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후 단체카톡방에 초대장을 보내면 1계좌당 최대 100명을 모임 멤버로 초대할 수 있다.

서비스의 장점은 회비관리를 편리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를 활용한 메시지 카드를 보내 회비 납부를 요청하고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임 멤버들은 실시간으로 통장 내역을 확인 가능하다.

모임통장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기존 카카오프렌즈 체크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캐시백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출계좌, 휴면계좌, 거래중지계좌, 사고계좌는 모임통장으로 전환할 수 없다.

이 서비스는 3일부터 카카오뱅크 앱을 업데이트한 후 이용이 가능하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기존 출시한 모임통장 서비스에서 모임 멤버 초대와 회비 납부 요청 등 소통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며 "회비 관리의 투명성과 함께 보안까지 강화한 서비스"라고 말했다.

"임시직 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되면 생산성 저하"

한은 BOK경제연구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동생산성' 보고서

정규직이 줄고 임시직이 늘어나는 등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되면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일 한국은행 BOK경제연구에 실린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동생산성: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보고서(최충 한양대 경제학부 부교수, 최광성 한양대 응용경제학과 박사과정, 이지은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작성)에 따르면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가 노동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고서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9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난 1990~2015년간 상용직·임시직 고용비중 변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패널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임시직을 상용직으로 대체하면 OECD 29개국의 평균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비용 등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도출된 결과다. 상용직 비중이 1%p 늘어나고 임시직 비중이 1%p 감소하면 노동생산성은 0.23~0.56%p 향상했다. 반대로 임시직 비중이 1%p 늘고, 상용직 비중이 1%p 감소하면 노동생산성이 0.22~0.64%p 감소했다.

보고서는 "임시직 증가로 인한 노동생산성 증가 효과보다는 상용직 근로자 감소에 따른 생산성 감소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임시직 근로자보다 상용직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더 높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상용직 비중은 지난 2015년 기준 57.5%로 OECD 평균인 73.6%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피고용인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6만7000달러로 OECD 29개국 중 19위로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결국 노동생산성을 높이려면 임시직 비중을 줄이고 상용직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해석을 가능케한다.

무안국제공항 사상 첫 연간 이용객 50만 돌파

국제선 다양화로 고공행진

무안국제공항이 국제선 다양화로 고공행진을 거듭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이용객 50만 명을 돌파했다.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이 3일 개항 이래 최다인 연 이용객 50만 명을 돌파함에 따라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선7기 들어 전남도와 광주시의 상생 협력 분위기와 함께 행정적 노력이 빛을 발하며 무안국제공항과 광주민간공항 통합이 결정되는 등 무안국제공항이 날개를 달아 지난 2007년 개항 후 11년 만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특히 연간 이용객 50만 명 돌파는 민선7기 김영록 도지사 취임 이후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 공약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는 가운데 달성한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전남도는 그동안 국적 항공사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대폭 늘어난 국내선 제주 1개 노선, 국제선 상하이, 오사카, 기타큐슈, 오이타, 타이베이, 방콕, 다낭, 세부, 코타키나발루 등 총 9개 노선을 유치했다.

2019년에는 더욱 다양한 노선이 신규 취항할 전망이다.

또한 연일 늘어나는 이용객 수요에 발맞춰 전라남도는 농협중앙회와의 협의를 통해 한정적으로 운영되던 환전소 운영 시간을 야간·토요일까지 확대 운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이용객들의 공항 접근성 개선을 위해 2019년 1월부터는 광주·목포에서 출발하는 노선버스를 1시간 30분 간격으로 정기 운행토록 하고, 마지막 도착 항공기 운항 시간까지 노선버스를 연장 운행토록 할 계획이다.

공항 통합에 대비한 기반·편의시설 확충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활주로 연장에 필요한 사업비를 2019년 정부예산에 반영되도록 국회에 요구하는 한편, 이용객들을 위한 기반시설 조기 확충, 면세점 등 각종 편의시설 확대, 훈련용 항공기 이전 등을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와 협의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공항공사에서는 연말까지 국제선 수화물벨트 증설 등이 포함된 무안공항 개발 로드맵 수립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2021년 공항 통합 이전에 필요한 시설이 모두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환 기자